

스페인 '전후 문학'의 범주에 관하여

김 상 유
단독/연세대학교

Kim, Sang-Yu(2003). Sobre el concepto de «literatura de posguerra» de España. *Revista Iberoamericana*, 14, 1-20.

El hecho de que se considere la guerra civil como el causante del marbete de «literatura de posguerra», aunque parezca una manera simplificadora de describir los fenómenos, en realidad responde a la verdad de los hechos. El marbete «literatura de posguerra» se caracteriza por una literatura empobrecida y dividida a consecuencia de la guerra civil, y por una literatura condicionada o controlada por el régimen mediante su propaganda ideológica y la censura. Por otro lado, es muy característico el hecho de que se destaquen algunos movimientos colectivos a gran escala en la literatura española durante el franquismo.

Parece existir unanimidad en torno al significado histórico de una fecha clave en la más reciente Historia española. El 20 de noviembre de 1975 marcó, con la muerte de Franco y la consiguiente del régimen por él encarnado, el fin de un período y, por ello, el nacimiento de otro cuyas características son totalmente nuevas o, cuando menos, diferentes. No obstante, al considerarse esa fecha como un rumbo nuevo en la literatura española, existen no pocas perspectivas conflictivas. Este problema proviene del hecho de que, a diferencia de la guerra civil que significó una ruptura clara y explicativa, el año 1975, que señala el final de la dictadura, aunque haya un cambio político y social, no significa tal ruptura definitiva sino una transición gradual. Además se opina que antes de la transición ha existido un cambio gradual en el ambiente cultural que ahondaba la escisión entre la esfera oficial y la de lo posible.

Al fin y al cabo, la posibilidad de señalar fechas límites a la literatura de posguerra parte de la pérdida de la validez de los elementos que la habían caracterizado. Al tener en cuenta que la literatura de posguerra estaba condicionada por las consecuencias de guerra civil, el exilio, el franquismo, la censura, etc., y que durante esa época se han manifestado en el ámbito literario algunos movimientos colectivos a gran escala que pueden interpretarse como una reacción ante aquella realidad, el año 1975 es un hito que merece ser denominado como el fin del marbete «literatura de posguerra» y tiene en buena medida su valor divisorio en la historia de la literatura española contemporánea. Además, esta razón adquirirá más vigor al reconocer, por un lado, que la transición sirve como una base para la nueva sensibilidad y los nuevos gustos de la literatura actual, y por otro, al confirmar los nuevos aspectos de la narrativa española posterior a 1975.

Key Words: Literatura de posguerra española/ Transición política/ Historia literaria, 스페인 전후 문학/ 정치적 전환기/ 문학사

I. 서론

스페인 역사에 있어 3년간의 내전은 하나의 분기점으로 간주된다. 상당수의 문인들이 전쟁 중에 사망하거나 전쟁 직후 망명을 떠났기에 문학 분야도 폐허의 상태에서 새로운 재건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스페인 현대 문학사에서 시대 분류로 흔히 쓰이고 있는 ‘전후 문학(Literatura de posguerra)’은 용어 자체의 분명함만큼 당연히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 늘어져 가는 ‘전후 문학’의 꼬리를 보며, 몇몇 비평가는 조금씩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그 용어의 남용에 대해 지적하기도 하였다. 일례로, 알폰소 레이(Alfonso Rey)는 전후 문학의 대표적 소설가 미겔 델리베스(Miguel Delibes)의 작품 세계를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필연적으로 미겔 델리베스가 포함된 시대인, 그리고 정의된 바 없지만

줄곧 사용된, '전후 문학'이란 개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의 연대기적 정확성은 문학적 결과물에 비추어 보면 모호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소설 전개과정을 단편적인 부분으로 구획하고,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문학적 경향들을 보지 못하게 할뿐만 아니라, 사실들을 바라보기에 필요한 조망을 축소시킨다.¹⁾

이 문제제기에서 보듯이, '전후 문학'이란 용어가 널리 사용되어 왔지만, 사실상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나는 그 시대적 개념과 실제 문학적 특성간의 연결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전후 문학의 범위를 언제까지 연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일반적으로 프랑코 독재의 끝인 1975년을 기점으로 문학의 영역에서도 새로운 시기가 도래했다고 간주하지만, 정치적 체제변화에 문학이 지나치게 종속되어 있는 듯한 느낌은 피할 수 없다. 명확한 단절로 간주할 수 있는 내전과는 달리, '정치적 전환기(Transición política)'는 점진적인 방식으로 진행된 과도기라는 점도 그러한 느낌이 들게끔 함꼐 한다.

다음의 인용에서 프란시스코 아반(Francisco Abad)은 역사는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사건들의 상관성을 토대로 하나의 의미를 추출해 내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지적한다.

각기 다른 사실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속에서 역사적 구조는 여러 관계들의 총체이며, 그로써 쓸모가 있다. 역사성의 참된 실체는 사실들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들의 결합이나 상관성 및 전체적인 의미에 있다. 따라서 역사학의 법칙은 구조의 의미를 밝히는 것으로 만들어지며, 하나의 법칙은 '중세적인 것', '바로크적인 것' 등이 어떻게 생성되는가를 밝히는 것이다.²⁾

그렇다면, '전후 문학'이 내포하고 있는 그 시대의 문학적 특징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 또한 이것을 밝힘으로써 전후 문학이 어느 시점까지 개념적 유효성을 지니는가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 Alfonso Rey(1975), 281-282.

2) Francisco Abad(1989), 191.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전후 문학의 특징을 비롯해, 하나의 문학사적 분기점으로서의 ‘정치적 전환기’에 관한 쟁점을 중심으로, 전후 문학의 범주를 논하고자 한다. 그리고 ‘전후 문학’이라는 용어가 지닌 문학과 그 사회적 맥락을 논의하여, ‘전후 문학’이 단순한 시대 지칭 용어를 넘어 구체적인 문학적 함의를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II. 전후 문학의 특징

대부분의 문학사가들은 스페인 내전을 분명한 역사적 분기점으로 간주하고 있다.³⁾ 그러나 마르티네스 카체로(José María Martínez Cachero)와 같이 이견을 제시하는 이도 없지 않다. 그는 1936년 무렵까지 소설 창작활동이 미미했기에, 내전으로 인해 그 활동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단절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⁴⁾ 그러나 마르티네스 카체로의 주장은 종합적인 관점이 결핍되어 있고 더군다나 역설적이기에, 그에 동조하는 이는 찾기 어렵다. 말하자면, 자신의 논지에서 여러 사회·문화적인 측면과 그 시대적 상황을 분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전이 유발한 결과를 축소시키는 동시에 전후에 남아 있는 것을 부각시키려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전후 문학’이라는 용어가 내전으로 인해 산출되었다고 간주하는 것은 시대적 상황을 단순화시켜 표현한 것으로 비칠 수 있지만, 당시의 실제 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전쟁 와중에 양 진영 모두의 문학에서 예찬적 혹은 도구적 성격이 드러나고 있으며, “시대 정황적 문학의 절박한 필요성과 이념에 복무하여 글을 쓰는 작가의 당위성이 지배적이다. 이것이 1936년에서 1939년까지 문학의 공통된 특징이며, 그런 특성으로 이 기간을 따로 떼어놓을 수 있다.”⁵⁾ 전후 새로운

3) 산토스 산스 비야누에바는 “우리 문학사의 또 다른 단계 설정을 위해, 내전을 고려하는 것은 이미 스페인 현대 문화의 시기별 분류에 있어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지적한다. Santos Sanz Villanueva(1984), 13.

4) José María Martínez Cachero(1997), 10 참조.

5) Santos Sanz Villanueva(1984), 13-14.

정치 체제와 지식층간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할 때, 정치·군사 분야와 문화 분야가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은 커다란 착오일 것이다. 1940년대에 일상 생활의 아주 자그마한 부분들까지도 전쟁의 후유증을 앓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즉 1939년 4월 1일, 프랑코의 승리는 “그 당시 명명한 유명한 구절로 표현하자면 <국가조합주의적·전체주의적·권위적·통합적·윤리적·종교적·제국주의적> 체제를 전국에 이식하는 것”⁶⁾을 의미한다.

스페인 사상사에서 내전은 새로운 단계의 시작으로 흔히 지적되며, 다음 주장처럼 스페인 문학에서도 바로 이전 전통과의 단절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수차례 지적된 바와 같이, 내전의 결과는 바로 이전 전통과의 아주 깊은 단절을 의미한다. 소설 장르에 있어서, 바로하(Baroja), 우나무노(Unamuno), 바예인클란(Valle-Inclán) 등이 주도한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경향을 상실해 버렸으며, 페레스 데 아얄라(Pérez de Ayala), 가브리엘 미로(Gabriel Miró), 벤하민 하르네스(Benjamín Jarnés) 등의 주장을 계승한 이들은 40년대에 있지도 않았다. 전후 소설은 마치 19세기 후반의 사실주의로 후퇴한 듯 보인다.⁷⁾

전쟁 바로 이전, 즉 1931년에 출범한 스페인 공화정 기간에 소설 장르가 꽃피웠지만, 새로운 체제가 전쟁 이전의 문인들과 그들의 사상에 분명히 반대하고 있었기에, 그들의 문학작품은 스페인에 남아 있던 사람들로부터 수용될 수가 없었다는 건 분명하다.⁸⁾

전쟁으로 인한 직접적인 단절은 문인들의 사망이나 망명 및 수감에서 찾을 수 있으며,⁹⁾ 그후 프랑코 정권은 공화주의적, 진보적, 사회참여적 문학을 제거하려 했고, “왕정복고기(Restauración)¹⁰⁾ 의회 체제에

6) Carlos Blanco Aguinaga & Julio Rodríguez Puértolas & Iris M. Zavala(1979), 73.

7) Domingo Ynduráin(1981), 318.

8) Juan Ignacio Ferreras(1988), 12.

9) 1939년 12월 스페인의 정치범 수는 공식적으로 27만여 명에 달했으며, 수감된 대표적 문인으로 미겔 에르난데스(Miguel Hernández)를 들 수 있다. Carlos Blanco Aguinaga & Julio Rodríguez Puértolas & Iris M. Zavala(1979), 18 참조.

서 비롯되었던 정치사회적 부패를 일소한다는 측면에서 19세기 자유주의적 전통의 영향을 제거하려 했다. 따라서 이미 문학사에 입지를 굳혔던 클라린(Clarín)이나 페레스 갈도스(Pérez Galdos)와 같은 작가들의 작품 또한 보급이 금지된다.”¹¹⁾

실제로, 불과 몇 년 사이에 스페인 국내 문화가 위축되었고, 이 현상의 한 가지 원인으로 바로 이전 시기 문인들의 사망을 지적했는데, 이는 전쟁으로 사망한 경우와 자연사 모두를 포함한다. 또 한 가지 원인으로 꼽은 망명의 경우, 정권의 억압을 피해 유럽과 아메리카로 떠난 공화파 망명자들의 숫자가 50만여 명에 달한다.¹²⁾ 작가들 가운데도 망명자 수가 많았던 만큼 스페인 국내의 창작 활동에 엄청난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으며, 이를 통해 40년대 스페인 문학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마누엘 아스나르 솔레르(Manuel Aznar Soler)의 지적처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대다수의 스페인 지식인들, 즉 스페인 문화에 있어 일명 ‘은시대(Edad de Plata)’의 주요 인물들은 공화파 명분에 충실했었고, 더구나 1940년대에 스페인 망명 문학은 프랑코 치하의 스페인에서 출판된 것보다 작품성에서 훨씬 뛰어났다.¹³⁾ 여기서, 프랑코 독재 기간 동안 정치적으로 침묵과 망각 속에 처해진, 스페인 문학의 본류에서 떨어져 나온 망명 작가들과 제삼국에서 출판된 그들의 문학을 어떤 식으로 스페인 문학 속에 포함시킬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비록 1960년대부터 일부 유통경로를 통해 공화파 망명 문학은 스페인 국내의 소수 반체제 독자층에게 조금씩 알려지긴 했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프랑코 치하의 스페인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문화적 선도주의, 문화의 제도화, 자유의 결핍”¹⁴⁾ 등으로 특징 지워

10) 군부 쿠데타 세력이 제1공화정(1873-1874)을 무너뜨린 후, 옹립한 알폰소 12세의 재위기간(1874-1885)을 의미한다.

11) Santos Sanz Villanueva(1984), 20-21.

12) Manuel Aznar Soler(1999), 3 참조.

13) *Ibid.* 참조. 산토스 산스 비야누에바 또한 40년대 문학적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망명지에서 작품 활동은 평균적으로 아주 탁월했으며 [...], 더구나 우리 현대사에서 그리고 스페인 문단에서 흔치 않을 정도로 시와 소설 분야에서 독보적인 몇몇 작품들이 생산되었다.” Santos Sanz Villanueva(1984), 24.

14) Juan Ignacio Ferreras(1988), 12.

지는 프랑코 정권의 전체주의적 태도는 당시 스페인의 문화적 배경을 다음과 같이 규정 지었다.

작품 활동의 엄격한 제한으로 비판적 내용의 상실, 시 장르의 소네트와 같은 전통적인 형식으로 복귀, 역사를 도외시하며 철저히 도피하는 주제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다른 한 편으로, 그리 많지는 않더라도, 프랑코파의 전승(戰勝) 문학 작품들도 없지 않다.¹⁵⁾

어느 측면에서, 프랑코 정권의 국가 정체성 확립 사업은 작품과 수용자의 관계에 있어 검열 그 자체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사실상 더 포괄적인 의미의 검열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그것이 상호작용하는 관계라는 사실에서, 독자와 작가는 상호 동일한 한계를 지니게 되고, 또한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작품이 배급 및 수용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¹⁶⁾

40년대에 문화와 정치의 긴밀한 관계 형성으로 스페인 사회는 특징 지워지며,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검열은 프랑코 집권기 내내 문화나 언론 활동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가 전적으로 문화를 책임질 때, 문화는 단지 하나의 목표와 하나의 방향만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 국가는 모든 차원의 검열을 동원하게 된다. 이렇게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작가와 작품에 가해지는 압력뿐만 아니라, 억압적 사회 속에서 글쓰는 이들이 지닌 내면적 한계와 그로부터 비롯되는 자기검열을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¹⁷⁾ 또한 검열은 외국 사상의 전반적인 수용을 방해하면서 내적 발전을 저해했으며, 강한 종교적 교리와 함께 행사되었다.¹⁸⁾ 한스 위르크 노이슈페어(Hans-Jörg Neuschäfer)의 다음 지적처럼, 검열은 작품 창작의 내용적인 면에서 몇몇 테마들을 금기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서사 형식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테마의 금기와 마찬가지로 이중 검열 과정(계획에 대한 사전 검열과 텍스트 혹은 영화가 완성된 이후의 최종 검열)으로 인해, 자신의 생각을 직접

15) Carlos Blanco Aguinaga & Julio Rodríguez Puértolas & Iris M. Zavala(1979), 81.

16) Luis Suñén(1985), 5.

17) Juan Ignacio Ferreras(1988), 12 참조.

18) José-Carlos Mainer(1981), 6-7 참조.

적으로 표출하는 것은 위험스럽게 때문에, 작가들이 위장 전술, 즉 간접적이고 은밀하게 이야기하는 형식을 쓰게 된 것은 분명하다.¹⁹⁾

더 나아가, 한스 위르크 노이쉴퍼는 프랑코 정권 하의 검열에 관한 로만 구베른(Román Gubern)과 마누엘 L. 아베얀(Manuel L. Abellán)의 연구를 참조하면서,²⁰⁾ “검열이 전쟁 직후, 즉 프랑코 정권 초기에 강도 높게 집행되다가 점차 약화되어 1966년 프라가(Fraga)의 새로운 언론법 공포 및 개방 정책으로 후퇴했다”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온 주장이 근거 없음을 지적한다.

1938년 낡은 법을 대신하여 1966년 크게 공포된 언론법은 새롭고 개방적으로 보이지만, 불안감을 제거하지는 못했다. 이전에 의무적이었던 사전 상담이 선택 사항으로 변했다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일어난 변화는 없었다. 왜냐하면, 언제나처럼 당국자들은 최종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고 아무도 카드 한 장에, 즉 결정적인 판단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계속해서 사전 상담에 의뢰하거나, 출판사들이 해당 독서 위원회에 그런 작업을 위탁하면서 대신했다. 그러므로 새로운 언론법은 초기에 자체검열을 비롯해 행정절차상의 예측불가성을 가중시켰지만, 창작 조건의 진정한 자유화라고는 볼 수 없었다.²¹⁾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내전으로 인해 양적 및 질적으로 상당한 갈래가 당시 스페인 문학의 본류에서 분리되었고, 새로운 문화를 강제하려는 프랑코 정권의 욕구로 인해 “아마도 스페인 역사상 보기 드물 정도로 이전 시대와 크게 차별적인 시대로의 이행이라는 단절”²²⁾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전후 문학’은 전쟁으로 척박해진 환경에서, 그리고 전

19) Hans-Jörg Neuschäfer(1994), 10.

20) 다음의 연구서들이다. Román Gubern(1981), *La censura. Función política y ordenamiento jurídico bajo el franquismo (1936-1975)*, Barcelona, Península; Manuel L. Abellán(1980), *Censura y creación literaria en España (1936-1976)*, Barcelona, Península.

21) Hans-Jörg Neuschäfer(1994), 54.

22) Santos Sanz Villanueva(1984), 17.

체주의적 정권에 의해 통제된 환경에서 싹터 자라난 것이다.

대부분의 스페인 현대 문학사가들은 프랑코 정권기 동안 몇몇 집단적 문학 경향을 지적하면서, 이 시기 문학을 세대별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세대별 분류는 근본적으로 문학적 흐름의 연속성을 분리시키고 제한한다는 위험성이 있지만,²³⁾ 프란시스코 아밭의 다음 지적에서 그 유효성을 찾을 수 있다.

세대적인 소속은 세대를 형성하는 이들 서로 간에 동일하거나 일치된 대응이 아니라 '연관성 있는' 대응을 이끌어 낸다. 말하자면, 어떤 의미 즉 역사문화적 의미가 내재된 대응 말이다. [...] 적어도 이것은 그들이 동일한 시대에 속하는지, 그들이 같은 환경에 몸담고 있는 동일 지역민인지와 관련되어 있다. 물론 그 속에서 각자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대응하더라도 말이다.²⁴⁾

사실, 수많은 문학 작품 속에서 역사문화적 의미를 찾고자 하는 문학사가들에겐 이 세대별 구분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전후 소설 장르의 세대 구분을 위해 쓰인 용어는 문학사가들에 따라 차이점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쟁 1세대(Primera promoción de la guerra)', '세기 중반 세대(Generación del medio siglo)', '60년대 말 세대(Generación de finales del 60)' 등으로 지칭하고 있다.

'전쟁 1세대'는 1910년과 1920년대 초반 사이에 출생한 작가들로, 내전을 직접 목격하거나 참전한 바 있으며, 전쟁이 끝난 이후에 문학 활동을 시작한 이들이다.²⁵⁾ 이 세대는 40년대 소설 장르를 주도한 작가들로서 자연주의와 풍속주의의 영향을 받은 19세기 풍의 전통적 사실주의적인 특징이 현저하지만, 그 이후로 전개된 개별적인 창작 활동 양상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차이점을 보여준다.²⁶⁾

23) 스페인 현대 문학사 기술의 문제점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김상유(2003)을 참조.

24) Francisco Abad(1989), 192.

25) 대표적인 작가들로 Zunzunegui, Agustí, Cela, Torrente Ballester, Laforet, Delibes 등을 들 수 있다.

26) 산토스 산스 비야누에바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전쟁 1세대 가운데 순수네기(Zunzunegui), 아구스티(Agustí) 등과 같은 몇몇 작가들은 40년대 당시 흥미로운 작품으로 성공을 거두었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별다른 호평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문화적 고립이라는 자급자족적 성격의 40년대를 넘어서, 50년대부터 외국인 관광부흥, 산업발전의 시작, 국제사회로의 정치적 개방, 망명작가들과의 교류,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교류, 56년 대학가의 위기 등과 같은, 괄목할만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비롯해 정권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공개적으로 표출되는 시기로 접어든다. '세기 중반 세대'²⁷⁾는 다수의 작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가들의 연령과 문학적 특성 면에서 높은 일치 수준을 보이고 있기에 진정한 그룹 혹은 세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들 작가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제시할 수 있는 첫 번째 특징은 그들의 출생 시기가 내전 발발 10여년 전과 내전 발발 사이라는 점이며, 두 번째 특징은 작품의 주요 발표 시기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 특징으로 문학적 경향에 있어서 '세기 중반 세대' 작가들은 비판적 성향의, 때로는 정치적 의도가 포함된 사실주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즉 문학이 지닌 윤리적 측면에서 이 시기 작가들은 사르트르의 '양가주망(engagement)' 노선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60년대에 들어와, 라틴아메리카 소설의 영향과 더불어, 루이스 마르틴 산토스(Luis Martín Santos)의 『침묵의 시간 *Tiempo de silencio*』(1962)을 그 출발점으로 간주하며, 몇몇 비평가들은 스페인 소설이 새로운 방향으로 접어들었다고 지적한다.

요절한 사회주의 운동가였던 루이스 마르틴 산토스의 소설 『침묵의 시

가 있다. 다른 작가들 가운데 셀라(Cela)는 40년대 초반부터 작가적 위상을 굳혔고, 토렌테 바예스테르(Torrente Ballester)는 독자와 비평계의 인정을 받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발전된 양상을 보이며 문학적 입지를 다졌다. 그리고 라포레(Laforet)처럼 중요한 작품을 쓰고 나서 후속 작품이 없는 경우와, 델리베스(Delibes)처럼 안정적이고 우수한 작품세계로 근래에 들어와 알려진 경우가 있다. Santos Sanz Villanueva(1984), 68-69 참조.

- 27) 다음과 같은 작가들이 대표적으로 포함된다. 1924년생: A. Ferres, L. Martín-Santos. 1925년생: I. Aldecoa, F. Candel, A. López Salinas, C. Martín Gaité, L. Olmo, 1926년생: J. M. Caballero Bonald, J. Fernández Santos, J. Ferrer-Vidal, A. M. Matute, F. Morán, 1927년생: J. Benet, M. Lacruz, R. Sánchez Ferlosio, 1928년생: M. Acre, J. M. Castillo-Navarro, J. García Hortelano, A. Grosso, J. Molla, 1929년생: F. Ávalos, N. Quevedo, 1930년생: J. López Pacheco, A. Marín Menchén, A. Prieto, 1931년생: J. Goytisolo, R. Rubio, D. Sueiro, 1933년생: J. Marsé, 1934년생: R. Nieto, 1935년생: F. Umbral, L. Goytisolo, 1936년생: I. Montero 등. *Ibid.*, 105 참조.

간』이 이미 1962년에 나왔다는 것은 서사 형식에 있어 직접성이나 증언성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즉 '붐(boom)'이라고 불리는 라틴아메리카 소설의 영향과 동떨어지지 않은 방향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때부터 사회적 혹은 증언적 사실주의는 퇴조하고, 주제와 형식에 있어서 의식적인 혁신이 사회·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모든 문학 장르에 걸쳐 나타난다.²⁸⁾

사실주의의 퇴조와 더불어, 노동 문학과 반 부르주아 문학도 그들 문학의 미학적 배타성으로 인해 60년대에 접어들어 지지기반을 크게 잃어버린다. 특히 그들 미학이 주요하게 두 가지 측면에서 실패했다는 이유로 무용론이 등장하게 된다. 즉 그 문학이 의식화, 정치 선전의 매개체로서 효과적이지 못했으며, 따라서 이러한 문학외적인 목적을 위해 뒷전으로 밀어두었던 낮은 작품성을 정당화할 수가 없었다. 풀어야 할 근본적인 문제는 비판적 관점과 문학적 현대성을 어떻게 조율하는가였으며 이런 까닭에 주제와 형식적 측면에서 적합한 쇄신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모든 문학 장르에 걸쳐 혁신과 실험성이 지배하게 되고, 단순한 현실 모방을 피하면서 비유와 상징으로 대처하기에 이른다. 60년대 중반을 넘으면서 위의 성격을 지닌 다수의 작품들이 발간되었고 그러한 문학적 변신이 공고하게 자리잡게 된다. 60년대 말 무렵, 1936년에서 1950년 사이에 출생한 작가들로 구성된 하나의 세대가 스페인 문단에서 형성되었고,²⁹⁾ 이들 작가들은 그런 문학적 변화를 성숙시켜, 이전 시기의 경향과는 완전히 다른 문학적 토대를 다지게 된다. 이러한 문학적 흐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들 작품의 독특함보다는 미학적 취향에 나타난 커다란 변화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문화 배경적 측면에서 사실주의 문학에 대한 배타적인 선호가 사라졌다는 것과 다른 한 편으로, 예술적인 측면으로 상상력을 다른 요소들과 함께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³⁰⁾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이전 세대, 즉 '전후 1

28) Carlos Blanco Aguinaga & Julio Rodríguez Puértolas & Iris M. Zavala(1979), 179.

29) 여기에 다음의 작가들이 포함된다. José María Guelbenzu, Ramón Hernández, Antonio F. Molina, Pedro Antonio Urbina, José Leyva, Vicente Molina-Foix, Manuel Vázquez Montalbán, Félix de Azúa, Augusto M. Torres, Ana María Moix, J. Fernández de Castro, J. P. Quiñero, Javier Marías, L. M. Panero, Juan Cruz Ruiz, J. J. Armas Marcelo 등.

30) Santos Sanz Villanueva(1984). 42-46.

세대' 및 '세기 중반 세대'에 속하는 적지 않은 작가들 또한 그와 같은 사실주의에서 실험성으로의 혁신 과정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후안 익나시오 페레라스(Juan Ignacio Ferreras)의 다음 제안은 충분히 설득력 있다.

전후 소설 비평가나 문학사가는 작가보다 작품 자체에 대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전에 지적한 전후 시대나 시기는 해당 작품들을 통해 나타나며, 작가들과는 별개로, 그 작품들은 상호간에 유사성이 드러나거나 동일한 소설세계에 속하는 것이다.³¹⁾

요약하자면, '전후 문학'은 내전과 더불어 문인들의 사망 및 망명으로 축소·분리된 문학으로, 그리고 프랑코 정권의 이데올로기 선전으로 제약 받고 검열로 통제 받은 문학이라는 특징이 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랑코 시대에 몇몇 대규모의 집단적 문학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은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Ⅲ. '정치적 전환기'의 문학사적 의의

스페인 최근 역사에서 1975년 11월 20일이 함축하고 있는 역사적 의미에 관해서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 시점은 프랑코의 죽음 및 그 정권의 종말이라는 한 시대의 끝을 의미하는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아니면 적어도 판이한 성격을 지닌 시대의 탄생을 의미한다.³²⁾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 호세 카를로스 마이네르(José-Carlos Mainer)는 “격동의 1975년 가을을 지나, 1976년부터 반권위주의적·무정부적인 사상의 부활, 공산주의 좌파의 중요성, 정치적 문학과 회고주의 대한 집착 등이 새로운 요소로 등장했고, 이와 더불어 소규모의 '진보적' 출판사업이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대중들의 새로운 욕구에 부합하는 대규모 상업적 출판이 활성화되었다”³³⁾라고 지적한다. 당시 문학 분야에서도 이

31) Juan Ignacio Ferreras(1988), 86-87.

32) Ramón Acín(1990), 19.

러한 새로운 상황이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소설 장르와 관련된 대표적인 예를 인용하면, 먼저, “내전이후 스페인 안과 밖의 모든 작품들을 합쳐, 전후 스페인 소설에 ‘망명 소설’의 역사를 통합하여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³⁴⁾과 더불어 “전후 통제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길찾기와 정체성을 모색하던 스페인 소설이 이 당시부터 자유를 되찾게 되었다는 것”³⁵⁾이다. 즉 이 분리되었던 문학의 통합이라는 측면과 함께 프랑코 정권의 검열 및 이데올로기 공세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측면은 전환기에서 핵심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부터 스페인 문학이 새로운 방향으로 접어들었다고 간주할 때, 논쟁의 여지가 적지 않다. 앞에서 다룬 것처럼, 단절적 의미가 분명한 내전과는 달리, 독재의 끝인 1975년은 비록 정치·사회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있었지만, 결정적인 단절이 아니라 점진적인 ‘전환기(Transición)’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프랑코 정권 후반부터 문화적 상황에 있어 공적 영역과 주변 영역 사이의 균열이 점차 깊어졌다는, 즉 전환기 이전부터 점진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지적 또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레로 다리오 비야누에바(Darío Villanueva)에 의하면, “프랑코의 죽음으로 스페인 사회와 문학이 급격하게 변화했다고, 즉 하루아침에 변신했다고 가정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특히, 최근의 미학·문학적 양태는 상징적인 1975년부터가 아니라, 이미 1960년대부터 이루어진 예술의 내적 변화과정이라는 점에, 작가, 비평가, 연구자 모두는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³⁶⁾ 이와 더불어, 작품 활동의 변화가 언제나 사회·정치적 상황 변화에 절대적으로 종속된 것은 아니며, 문학의 시기 구분 또한 장르에 따라 차이 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프란시스코 리코(Francisco Rico)는 “이 시점(전환기)의 상징성으로 인해, 1985년 무렵의 문학적 상황이 1965년 무렵과는 명확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1975년을 기준 잣대로 설정할 수밖에 없다”³⁷⁾고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대다수의 “20세기 스페

33) José-Carlos Mainer(1981), 13.

34) Darío Villanueva(1976), 11-12.

35) Juan Ignacio Ferreras(1988), 88.

36) Darío Villanueva(1992), 4.

37) Francisco Rico(1992a), VIII.

인 문학사' 텍스트는 그러한 시기 분류를 문제시하면서도 1975년을 분기점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예의 하나로, 후안 익나시오 페레라스는 “소설의 역사에 정확한 경계를 설정할 수 없다”는 것과 “집단 의식적 수준에서 그 이전에 시작한 전환기는 액면 그대로 이정표나 경계선으로 설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시대를 엄격히 구분한다면, 스페인 전후 소설은 1975년 11월 국가 원수의 사망과 함께 정확히 끝난다”고 그리고 “체제 변화의 장애물은 국가 원수의 목숨에 달려 있었다”라고 주장한다.³⁸⁾ 이러한 논지에서, 우리는 ‘전환기’가 시대 분류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더라도, 문학사적 맥락 속에서는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마르티네스 카체로의 입장은 다른 비평가들과 차이가 있다. 그가 프랑코 사후의 문학 양상에 대해 주장하기를, “1975년 말 민주주의를 회복한 이후로, 검열 폐지와 망명자들의 귀환과 함께, 그전부터 예상하고 기대했던 문학적 부흥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수의 작가들이 검열 때문에 세상에 내놓지 않고 보관 중이던 수준 높은 소설들은 (점작할 수 있듯이) 아예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호들갑스러움과 실망을 넘어, 이 장르는 그 어떤 단절 없이 평범하게 진행되어 왔다(그리고 계속해서 그럴 것이다).”³⁹⁾ 실제로, 적지 않은 이들이 품고 있었던 그런 기대는 이뤄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실망감이 인 것도 사실이다. 마르티네스 카체로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한다.

나는 마음대로 지어낸 실망감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을 만한 근거는 없었지만, 지난 날 소중히 간직했던 그런 기대는 머지 않아 의도적인 속임수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사라진 체제가 그렇게 억압적이진 않았고, 실제로 그 체제 기간을 결산해보면 몇몇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잘것없거나 삭막하지는 않았으며, 민주주의 체제가 곧바로 급진적인 혁신과 전례 없는 부흥을 반드시 가져다주어야 했던 것도 아니다.⁴⁰⁾

역설적이게도 마르티네스 카체로의 이러한 주장은 자신이 지적한

38) Juan Ignacio Ferreras(1988), 88-89.

39) José María Martínez Cachero(1997), 11.

40) *Ibid.*, 385.

“근거 없는 기대감”을 품은 이들의 주장과 그리 떨어져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양측 모두다 문화적 부흥이나 소설적 혁신이 단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아무 것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로부터 쉽게 이끌어낸 그들의 결론은 “뭔가 새로운 것을 보고자하는 조바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프랑코 사후에 새로운 물결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이전 시기 분명히 프랑코 정권에 의해 왜곡되고 통제된 상태에 있던 문학적 상황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말하자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프랑코 시대 문학 활동은 상당 부분 정권이 조장한 상황에 대한 대응이었기 때문이다.

프란시스코 리코의 다음 지적에서처럼, 문학 분야에 있어 검열 폐지는 일반적으로 역사적 사건으로 간주된다.

검열 폐지는 새로운 스페인 문학에 있어 가장 설득력 있는 징후로 간주된다. 정보부의 음산한 내실들이 서서히 파헤쳐진 것과 거의 동시에 그들의 가장 악질적인 적들, 즉 참여문학과 고전 좌파 이데올로기가 쇠퇴하게 된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그 가을과 프랑코의 죽음만큼이나 생물학적인, 내적 붕괴 과정의 절정이었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이전 프랑코 체제와 무기력한 비판 세력으로 인해 해당 현상들의 출현은 어느 정도 지연되었으며, 독특한 색조를 띠게 되었다.⁴¹⁾

이러한 프란시스코 리코의 지적은, 지난 정권의 문화적 통제와 더불어 무기력한 비판 세력으로 인해, 스페인에서 문학의 새로운 발현은 다른 나라에 비해 늦어졌고, 독특한 면모를 지니게 되었지만, 검열 폐지로 문학의 변화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이다. 더구나 적지 않은 비평가들이 검열 폐지로 소설 장르의 형식적 변화가 파생되었다고 간주한다. 이 나시오 솔데빌라 두란테(Ignacio Soldevila-Durante)가 지적하는 것처럼, “1966년 언론법이 공포된 이후, 아주 가혹한 시절에 출판인들은 실험적인 문학 경향을 장려한다. 그러나 이 법의 효력이 느슨해지고 1978년 완전히 폐지되자, 실험성은 그런 조력을 상실한다. [...] 1931년 제2

41) Francisco Rico(1992b), 86-87.

공화정이 선포된 이후의 전위주의와 마찬가지로, 실험주의자들은 방향성을 상실해 버렸다.⁴²⁾ 또한 그는 전환기에 나타난 독자들의 흥미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1975년부터 출판 상황이 변한 첫 번째 이유는 그 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내전과 프랑코 정권에 대해 알고자하는 독자 대중의 표면화된 관심에서 비롯된다. 1931년과 마찬가지로 그때부터, 허구적 작품은 상상보다는 정보에 주력해야 했고, 이는 전환기의 초반 몇 해 동안에 두드러진 측면이다. 그 당시처럼, 라몬 센데르(Ramón Sender) 풍의 다큐멘터리 소설이 다시 유행하고, [...] 스캔들적인 내용에 대한 취향이 되살아나고, 마찬가지로 출판인들이 베스트셀러를 만들기 위해 적합한 요소들을 소설가들에게 서슴지 않고 추천하게 되면서, 다양한 예술적 수준의 예로 소설, (성적이거나 폭력적인) 포르노 등도 다시 나타난다.⁴³⁾

이러한 문학 경향의 변화와 더불어, 비록 프랑코 정권 시절에도 망명작가의 재통합 과정이 극히 제한적으로나마 시작되었지만, 전환기는 망명작가들이 ‘완전히’ 재통합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학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다리오 비야누에바의 지적을 인용하면, “전쟁을 직접 겪은 세대에 속하는 망명작가들이 이 시기에 모국으로 완전히 재통합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문학적 상황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이제 문학사가들은 ‘망명 소설(혹은 시나 연극)’이라는 제목의 장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을 것이며, 그런 장은 망명했다는 이유 하나로 서로간의 성향이 아주 다른 작가들을 뭉뚱그려서 다루곤 했던, 일종의 게토였다.”⁴⁴⁾

여기서, 1975년 즉 전환기의 시작을 문학적 분기점으로 설정하는 것은 ‘전후 문학’이 끝나는 정확한 시기를 결정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왜냐하면, 산토스 산스 비야누에바의 지적대로, “편리하게 사용된 용어인 ‘전후 문학’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이제 시급해 보이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그 역사적 시기가 합리적이지 않을 정도로 길어지

42) Ignacio Soldevila-Durante(1990), 1199.

43) *Ibid.*, 1200.

44) Darío Villanueva(1992), 11.

기 때문이다.”⁴⁵⁾ 그는 문학사적 경계 설정이 인위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프랑코 정권의 종말과 민주주의로의 전환 시점이 전후 문학의 결정적인 경계선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논지 전개를 위해, 그는 60년대 후반, 즉 전환기 이전에 있었던 스페인 문학의 변화를 주목하면서, 새로운 감성을 지닌 작가들이 ‘노비시모스(Novísimos)’로 설명되는 시를 포함해(소설이나 연극에서는 특별한 지칭 용어가 없지만), 세 장르 모두에서 혁신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새로운 단계를 열었다고 받아들이면서도,⁴⁶⁾ 전환기에 더 큰 문학사적인 의의를 부여하는 이유를 다음에서 설명한다.

그런 가상적인 경계를 60년대 후반에 설정하는 것은 권장할만하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아무리 명확하고 많은 미적 변형이 있었다라도, 본질적인 측면에서 근본 조건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가 없었다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러한 상황은 문학의 주제뿐만 아니라 형식까지 상당 부분 결정짓는다. 따라서 자급자족 상황에서 문학작품의 예술적 가치의 부흥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변화가 있었던 전후의 역사·문화적 시대를 마감하는 해로 1975년을 설정할 수 있다. 1975년은 우리나라[스페인] 현대 정치사에서 결정적인 날이며, 주요하게 문화 영역에서 있어서, 작가가 겉모습만의 자유가 아닌 내면적이고 정신적인 자유까지 회복하는 과정의 시발점이 된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 이 시대에 참으로 두드러진 특징이다. 왜냐하면 이제 예술가는 검열의 제한을 받지 않을뿐더러 작품으로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복무하는 역할을 떠맡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지식인은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에 자신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회복하고 예술가는 자유롭게 자신의 활동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⁴⁷⁾

위의 인용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적 전환기’가 지닌 가장 중요한 문학사적 의의는 바로 표현의 자유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전환기 이후, 즉 미래를 위한 새로운 문학적 토대로 이해 할 수 있으며, 앞서 논의한 망명 문학의 통합 및 구정권 이데올로기의 청산은 내전에서 비롯

45) Santos Sanz Villanueva(1984), 46.

46) Santos Sanz Villanueva(1992), 249.

47) Santos Sanz Villanueva(1984), 47.

된 과거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즉 문학사적 관점에서 전환기는 과거로부터 파생된 문제가 해소된 시점이자, 미래를 위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IV. 결론

전후 문학의 한계 시점을 설정하기 위한 가능성은 전후 문학이 지닌 문학적 함의들의 유효성이 상실되는 시점에서 출발한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전후 문학이 내전, 망명, 프랑코 정권의 이데올로기, 검열 등의 결과로 조건지어져 있었다는 사실과, 당시 그러한 현실에 대한 대응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몇몇 집단적 움직임이 문학 영역에서 대규모로 표출되었다는 사실에서 그 문학적 함의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전환기의 시작인 1975년은 전후 문학의 조건과 특성이 해소되는 시점인 까닭에 '전후 문학'의 끝으로 지정 가능한 분기점이며, 스페인 현대 문학사에서 상당한 구분 가치를 지니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논지는 다음 두 가지 사실을 고려한다면 더욱 설득력 있게 될 것이다. 먼저 전환기가 현재 문학의 새로운 감수성과 취향의 토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며, 두 번째로는 1975년 이후에 간과할 수 없는 새로운 문학적 경향들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실험적 형식들이 퇴조함과 동시에 작가의 내면적 주제들이 부각되고, 메타 소설, 추리소설, 내전 및 전후 상황을 주제로 한 역사소설, 피상적이고 가벼운 주제를 다룬 '라이트(light)' 소설 등이 부상한 사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환기 이후의 문학은 한 가지 경향에 의해 주도되는 문학이 아닌, 다양성 혹은 복수성의 문학이자, 본격적인 소비·대중적 문학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상유(2003), “스페인 현대문학사 기술의 문제점 연구”, 『서어서문연구』 26, 209-226.
- Abad, Francisco(1989), “Sobre periodización de la literatura española”, *Cuadernos hispanoamericanos*, 469-470, julio-agosto, 191-206.
- Acín, Ramón(1990), *Narrativa o consumo literario (1975-1987)*, Universidad de Zaragoza.
- Aznar Soler, Manuel(1999), “Las literaturas del exilio republicano español de 1939: el estado de la cuestión”, *Insula*, 627, marzo, 3.
- Blanco Aguinaga, Carlos & Rodríguez Puértolas, Julio & Zavala, Iris M.(1979), *Historia social de la literatura española (en lengua castellana)*, III, Madrid, Castalia.
- Ferreras, Juan Ignacio(1988), *La novela española en el siglo XX (desde 1939)*, Madrid, Taurus.
- Martínez Cachero, José María(1997), *La novela española entre 1936 y el fin de siglo*, Madrid, Castalia.
- Mainer, José-Carlos(1981), “La vida cultural (1939-1980)”, *Época contemporánea: 1939-1980*, VIII de *Historia y crítica de la literatura española* (al cuidado de Francisco Rico), Barcelona, Crítica.
- Neuschäfer, Hans-Jörg(1994), *Adiós a la España eterna (La dialéctica de la censura. Novela, teatro y cine bajo el franquismo)*, Barcelona, Anthropos.
- Rey, Alfonso(1975), *La originalidad novelística de Delibes*, Universidad de Santiago de Compostela.
- Rico, Francisco(1992a), “Introducción”, *Los nuevos nombres 1975-1990* de Darío Villanueva, Barcelona, Crítica.
- _____ (1992b), “De hoy para mañana: la literatura de la libertad”, *Los nuevos nombres 1975-1990* de Darío Villanueva, Barcelona, Crítica.
- Sanz Villanueva, Santos(1984), *Historia de la literatura española 6/2: Literatura actual*, Barcelona, Ariel.
- _____ (1992), “La novela”, *Los nuevos nombres 1975-1990* de Darío Villanueva, Barcelona, Crítica.
- Soldevila-Durante, Ignacio(1990), “La narrativa”, *Historia de la literatura*

española de VV. AA., II, Cátedra.

Suñén, Luis(1985), "Escritura y realidad", *Insula*, núms. 464-465, julio-agosto, 5-6.

Ynduráin, Domingo(1981), *Época contemporánea: 1939-1980*, VIII de *Historia y crítica de la literatura española* (al cuidado de Francisco Rico), Barcelona, Crítica.

Villanueva, Darío(1976), "La novela", *El año literario español 1976* de VV. AA., Madrid, Castalia.

_____ (1992), *Los nuevos nombres: 1975-1990*, IX de *Historia y crítica de la literatura española* (al cuidado de Francisco Rico), Barcelona, Crítica.

김상유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국화아파트 1동 1501호

전화번호: 016-735-7511

E-mail: viomile@snu.ac.kr

논문접수일: 2003년 11월 10일

심사완료일: 2003년 12월 10일

게재확정일: 2003년 12월 15일